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ALEXANDRION GROUP 이 퍼트넘 카운티에 증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

로마니아 최대 증류주 생산업체, 첫 번째 미국 증류소를 설립하여 신규 일자리 102 개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루마니아 최대 증류주 생산업체인 Alexandrion Group 이 미드 허드슨 밸리에 첫 번째 미국 증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lexandrion Group 은 4,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퍼트넘 카운티에 자리한 새로운 증류소를 개조하고 향후 5 년간 신규 일자리 102 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2020 년 완공되면 증류소는 위스키, 버번, 진, 브랜디, 보드카와 같이 미국 시장에 맞는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의 경제 호황은 전 세계의 기업과 거주민을 유치해 왔습니다. 여기에 Alexandrion Group 의 첫 번째 미국 증류소가 추가됨으로써 이 지역은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Alexandrion Group 의 투자는 뉴욕주가 미식 및 주류 애호가를 위한 최고의 관광지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뉴욕주에서 Alexandrion Group 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기를 고대합니다.”

2017 년 7 월, Alexandrion Group 은 첫 번째 미국 증류소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주 수석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Alexandrion Group 과 긴밀히 협력하여 뉴욕주에 해당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를 통해 최대 270 만 달러의 실적 기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Alexandrion Group 은 신규 일자리 102 개를 창출하고 120,000 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증류소와 시음장을 건설 및 개조하는 데 4,0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해당 증류소와 시음장은 지역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퍼트넘 카운티 카멜의 세미너리 힐 39 (39 Seminary Hill)에 자리잡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는 풍부한 천연자원, 탁월한 인력,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방문객 등, 모든 규모의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추어 음료 및 증류주 생산의 국가 중심지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lexandrion Group** 이 허드슨 벨리에 첫 번째 미국 증류소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의 성장을 고대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기업 및 신규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 및 확장하도록 격려합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에 첫 번째 미국 증류소를 설립하기로 한 **Alexandrion Group** 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정책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이며, 뉴욕주를 위한 승리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요 주류 생산업체가 성장 단계에 있는 뉴욕주 증류소에 합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awaf Salameh Alexandrion Group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당국과 함께 **Alexandrion Group** 을 미국 시장에 소개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 고객에게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역 경제 투자는 당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증류소를 세계 각 지역으로 증류주를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성공하여 **Alexandrion Group** 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퍼트넘 카운티의 **MaryEllen Odell**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트넘 카운티는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이러한 고무적인 프로젝트를 환영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Alexandrion Group** 의 첫 번째 미국 증류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퍼트넘 카운티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Kenneth Schmitt 카멜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멜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Alexandrion Group** 이 첫 번째 미국 증류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장소로 카멜 타운을 선택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증류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산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경제 ‘활력소’입니다. 새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지역의 소매인 및 식당의 고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증류소는 수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지역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카멜 타운은 **Alexandrion Group** 의 전문가 및 컨설턴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현지 생산 수제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제 음료 제조업체를 보다 쉽게 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련의 입법 및 정책 변경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선 사항에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연구

지원, 새로운 맥주 농원 양조장 및 사과주 농원 양조장 면허 마련, 제한적 규제 폐지, 면허 취득 소요 시간 단축, 뉴욕주의 옛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가 2012년 뉴욕주 최초의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전문가 회의(Beer, Wine, Spirits and Cider Summit)를 개최한 이후로, 뉴욕주는 수제 증류주 산업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뉴욕주는 수제 양조장 160곳의 본고장이 되었으며, 2012년 이래로 100개 이상의 증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에는 양조 농가 131곳이 있으며, 이는 2012년 28곳과 비교하여 36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 4월, 뉴욕주는 허드슨 벨리에 뉴욕 최대이자 최초인 사케 양조장을 건설한 아사히 슈조 인터내셔널(Asahi Shuzo International Co., Ltd.)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사히 슈조는 세계적 명성의 닷사이 프리미엄 준마이(DASSAI premium Junmai Daiginjo sake) 다이긴조의 제조사입니다. 뉴욕에서 아사히 슈조(Asahi Shuzo)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서 최대 588,235 달러의 실적 기반 세금 공제를 일본술 양조장에 제공했습니다. 아사히 슈조(Asahi Shuzo)는 이 시설에 2,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 32개를 만들 것입니다.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이 사케 양조장은 연간 332,640 갤론의 사케를 생산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